



11  
월  
동  
향

6	총장과 조합간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첫 상견례
6	제7차 학원정상화추진직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10	노동조합 봉사단 모임
10	3/4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직종전환관련 규정 제정 촉구 → 소위원회 구성 합의 - 정년연장제도 시행 촉구
11	노동조합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역대 위원장 모임
12	성균관대, 건국대, 한양대 노동조합 방문
13	중앙대, 동국대 노동조합 방문
17	제8차 학원정상화추진직위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19	총장과 노동조합 집행부 상견례
20	제4차 대의원회의
20	기획처장 면담 - 직종전환관련 소위원회 구성 촉구
24	제12차 노동조합 집행부 회의 개최

人物探究 신규 조합원 인물탐구, 그들을 알아본다!!! ②

요즘 선배직원들은 최근 몇년새 부쩍 늘어난 후배직원들을 보며 호뭇해하는가 하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을 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편집자>

으르는 물이 되고픈 어린왕자

어린어날이 생일인 이종준 선생님. 그래서 인지 해맑은 동안을 자랑하는 그는 올해로 딱 개란한판입니다. 혈액형은 AB형, 외로움을 즐기는 것이 혈액형 탓은 아니겠지요? '어린왕자'가 별명이라는 그의 좌우명은 '나를 믿는다'. 그가 직면하는 문제해결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다는 그는 언제나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취미인 등산은 요즘에는 게을러져서 자주 못합니다. 현재는 교내 야구동호회에 신규가입^^ 2번 타자, 중견수가 희망이지만 원포인트 투수로 활약하고픈 소박한 꿈도 있습니다. 웃는 모습이 예쁘고, 마음씀씀이가 착한 여성이 이상형이지만 결국은 서로 느낌이 통하고 잘 맞으면 좋겠다네요.

지금 일하는 곳은 산학협력단.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과 만나 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아쉽다는 그는 산학협력단의 총무, 인사, 지식재산 관련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자신을 '물'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는 그는 "뚜렷한 색깔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항상 유유히 흐르며, 때론 강한 힘을 가지는 그런 물(?)같은 사람이 되는 게 바람"이라고 하네요.

이름(而立)의 문턱에 다다른 그! 공자보다도 더 빨리 자립한 그가 애타게 부여잡고 있는 꽃다운 20대라도 이제 몇 주후면 이별이네요. 부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군대까지 나온 그이지만 새하얀 얼굴은 웬지 고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토지신탁회사에서 2년여를 근무하긴 했지만 그에게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는 건 교내 외국인 선생님들(장

성대, 김옥진, 양춘호 등^^)에게 동남아 현지어를 묻는 것과 같으니 주의!! 스스로를 착하고 매너있고, 친하면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혹시 관심있는 여자들에게만 그러는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지네요.^^

혹시 입학팀을 찾았다 파티션 너머로 고개를 쳐들고 있는 타조 한 마리를 발견하시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확실히 사람 맞습니다!!!ㅋㅋ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는 특이한 좌우명을 가진 그에게, 겨울철 추위에 떨지 않으려면 문단속 잘할 것을 권합니다.ㅎㅎ 장거리 여행이 취미이고 오랜 자취생활로 뭘든 잘 먹는다는 그에게, 좋아한다는 회에 소주 한 잔 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입학처 입학팀 김도균 선생님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 이종준 선생님

부산토종 타조(!)를 소개합니다

이름(而立)의 문턱에 다다른 그! 공자보다도 더 빨리 자립한 그가 애타게 부여잡고 있는 꽃다운 20대라도 이제 몇 주후면 이별이네요. 부산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군대까지 나온 그이지만 새하얀 얼굴은 웬지 고향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토지신탁회사에서 2년여를 근무하긴 했지만 그에게 부동산 문제를 논의하는 건 교내 외국인 선생님들(장

사랑이 열리는 나무  
지역사회 이웃 돕기. '아름다운 기부'

성심껏 사랑의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는 비효익의 관습과 사랑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2009년 한해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마음을 보내주세요. 사랑을 실천하세요. 크리프 '아름다운 기부'에 동참하십시오. 크 따뜻한 마음이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올  
림  
터

노조소식지 4호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행하는 격월간지 '대학교육'(<http://magazine.kcue.or.kr/>) 중에서 최근 대학 내 주요 이슈가 되는 정보들로 꾸며 보았습니다. <편집자>

◆미래형 교육과정과 입학사정관계 : 2009년 9-10월호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도입된 입학사정관계와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61&no=3823>

◆대학의 논리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제언 : 2009년 5-6월호 지난 십여 년 간 대학 글쓰기 교육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글쓰기>를 교양필수과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59&no=3786>

◆특집 대학입학 자율화의 입학사정관계제도 : 2008년 11-12월호 입학사정관 도입의 의의 / 입학사정관의 기능과 역할 / 입학사정관계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입학사정관계도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입학전형 전문가제도의 정착과제  
[http://magazine.kcue.or.kr/last/sub\\_list.html?page=1&vol=156&date=2008/12](http://magazine.kcue.or.kr/last/sub_list.html?page=1&vol=156&date=2008/12)

◆대학 혁신과 경쟁력 : 2007년 3-4월호 대학사회가 변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 글로벌화의 가속화, 교육 수요자 니즈의 다양화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차별화 전략이 절실해지고 있다.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46&no=3521>

◆한국 대학의 경쟁력과 그 제고 방안 : 2007년 3-4월호 드라마 주몽에서 지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http://magazine.kcue.or.kr/last/popup.html?vol=146&no=3518>

"시험기간 차 한 잔의 여유" 행사 : 12. 14(월) ~ 16(수)

● 뜻있는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노동조합

대구대학교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Culture 4U 이벤트 당첨자 발표

행운의 이벤트 주인공



11월 27일 VIP석 2매 정 광 국 (영신조합원)



주간이벤트\_다민지음료 교환권 김 영 준 이 용 옥



이벤트 주점은 최재영, 최무한, 이재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Culture 4U 행사는 매주, 매일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갑니다.

Happy Birthday

이달의 생일자 [ 2009. 12. 1 ~ 12. 31 ]

이름	소속	생일	이름	소속	생일
안태휘	구 매 팀	12.1(월)10.15	여순자	학생지원팀	12.17(음)11.02
정효정	비 서 팀	12.1	황두환	사회과학대	12.21(토)11.06
권용복	정보통신운영팀	12.2	이경자	생명환경대	12.22
박배호	시설관리팀	12.2	김진영	정보통신대	12.24
은용한	대외협력팀	12.2(월)10.16	김호연	기 획 팀	12.24
박현구	사 범 대	12.3(월)10.17	정환유	생명환경대	12.26
김영근	경 리 팀	12.7(월)10.21	심경숙	장학복지팀	12.28(음)11.13
윤진영	교 무 팀	12.8	윤홍규	중앙도서관	12.29
손동우	대외협력팀	12.12(월)10.26	이상남	교육대학원	12.31(월)11.16
최문덕	입학사정관팀	12.12(월)10.26	정광국	영선초경팀	12.31(월)11.16
유진오	정보화개발팀	12.15(음)10.29	하정란	중앙도서관	12.31(음)11.16

• 연 제 : 2009. 11. 30 ~ 12. 18

• 어디서: **성산홀 1층 로비**로 오세요.

• 어떻게

- ① 고마운 사람에게 **나눔레터** 보내기
- ② 카드를 보내거나 받은 후 기부에 동참하기
- ③ 사랑이 열리는 나무에 카드 달기

• 주 관 : 학성처 자원봉사센터

• 후 원 : 노동조합

• 모여진 성금은 허약, 진형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합니다.